

2013.02

Vol. 16

Webzine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GFEZ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Gate of Asi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

급성장 하는 동북아 시장에 대응하여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을 육성하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 인프라,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 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선두 주자입니다.

CONTENTS

03 MESSAGE

메시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 집중

05 HOT ISSUE

핫이슈

- 금호석유화학 MOU 투자유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제57회 조합회의 임시회 개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14년 국고 739억 규모 발굴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총력 전개
- 광양경제청, 기업 밀착형 지원시책 추진
- GFEZ, 중국 온주시 대외경제기술합자협회와 교류확대

08 INVEST IN GFEZ

광양지구 소개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 광양지구

15 PHOTO NEWS

포토뉴스

GFEZ 주요 포토뉴스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물류 중심도시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 집중



존경하는 광양만권 지역주민 여러분! 입주기업체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癸巳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화, 행복이 가득하고, 국가적으로는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어
힘찬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나름의 성과도 거둔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차츰 회복세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EU도 내년
하반기에 경제가 상승 반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GFEZ는 보다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부족한 산단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투자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입주기업 지원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지구별 수요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 올초제Ⅰ산단 조성공사는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초제Ⅱ산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황금산단과 세풍산단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단은 대우조선해양 및 하동군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를 착공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올해의 목표액을 20억불로 정하고 국내외 우량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유치 지속 확대를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역별, 기능별로 재정비하였으며, 국내외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접촉하여 타겟기업을 발굴하는 등 공세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해나가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설명회 등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기 유치한 입주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등 국내기업 유치와 중국 U-turn 기업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중화권, 아시아 신흥 자본국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진출 의향 일본 선도기업, 중화권 유망기업,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신흥 자본국 관심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입주기업체 종사자와 가족의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배후단지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는 올해 말까지 전체 준공토록 하고, 선월하이파크단지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토록 하여 제2의 신대배후단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에 외국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외국인학교·의료기관과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등 지구 내에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학교는 내년 3월 부분개교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단계적으로 개교를 하겠으며, 국내 종합대학·병원과 연계한 연구소를 유치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한편,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울촌 제1산단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국비지원사업 확대 등 GFEZ 활성화를 위해 전남, 경남, 지경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하여 광양만권의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유치의 호기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광양만권 지역주민 여러분! 입주기업체 임·직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GFEZ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한 뒤에 큰 보람을 모두 나누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희 봉

금호석유화학 MOU 투자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금호석유화학(주)와 투자협약 체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금호석유화학, 여주시와 2월 2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울춘제1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체결식은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성채 금호석유화학 사장, 이호경 여수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금호석유화학의 신규사업은 바이오매스, TDF(Tire Driven Fuel, 타이어 고형연료), 태양열 집열시스템 등 열효율성이 우수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연료 및 에너지절감 설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울춘제1산단에 건설할 TDF(타이어고형연료) 가공공장은 열처리로 인한 화학물질 및 대기오염 발생 공정이 아닌 단순 파쇄를 통한 자원재활용으로 환경오염 발생을 원천 봉쇄할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2015년까지 1천억원을 투자해 울춘 제1산단내 165,000㎡ 부지에 태양열 집열시스템 등 3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공장을 건립하고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과 여주시는 금호석유화학의 성공적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제57회 조합회의 임시회 개최



‘12년도 주요업무 평가 결과 및 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013년도 첫 조합회의(의장 이용재) 임시회가 2월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주요업무 평가 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로 지난 해 추진했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되돌아 보고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사업들의 체계적인 수행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해 글로벌 경제위기, 내수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20

개사에 13억8천불의 투자유치를 실현하였고, 울춘제1산단 및 신대배후단지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감에 따라 울춘제II산단과 신규 배후단지의 조기 조성을 위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희봉 청장은 “이번 조합회의는 올 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고 글로벌 성공시대를 열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를 공유하는 자리다.” 며, “조합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물류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14년 국고 739억 규모 발굴



경제자유구역 SOC 시설 확충 등 21건 발굴, 개발사업 탄력 기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2월 18일 상황실에서 정인화 행정개발본부장 주재로 '2014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 굴 보고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수적인 SOC 시설 확충 등 739억원 규모의 핵심사업 21건을 발굴하고, 내년도 국비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향후 방향 및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인화 행정개발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내 SOC 시설 확충 및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 보가 절실한 만큼, 차질없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을 구축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성 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부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였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보고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이희봉 경제자유구역청장 주재로 24일 보고회를 개최하여 국고지원 건의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를 거쳐 중앙부처 관련실국에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국비 9건 382억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총력 전개



이희봉 청장,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기업유치 강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희봉 청장)은 올해 투자유치 목표를 20억 달러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1월 11일 2층 상황실에서 각 팀 별로 금년도 투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광양경제청은 올해 목표한 20억달러 달성을 위해 타깃기업 발굴 확대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해 나가는 한편 울촌·해룡·세풍산업단지별 투자유치 특성화 업종 선정, 포스코 및 포스코 마그네슘 등 선도기업 연관업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양지구 관광레저단지 디벨로퍼 발굴 및 두우배후단지 개발 사업자 발굴을 통한 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신대지구에 외국인 정주환경을 위한 교육·의료기관유치, 갈사만산단에 해양플랜트 연구소 등 을 유치하는 한편 전라남도 및 인근 시군 등과의 유기적인 협 력체제를 갖추어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및 중국, 일본, 미주지 역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IR활동 등을 실시하여 신규 투자유치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양경제청은 현재 국내외 60여개 기업과 다각적인 투자유치 접촉을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2월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인 A기업과 울촌산단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프랑스 B사, 부산소재 C사 등 10여개 기업과도 조만간에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양경제청, 기업 밀착형 지원시책 추진



기업 중심의 시책으로 기업경영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입주기업에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광양만권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입주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하이스코 등 130개사를 대상으로 「1기업 1도우미」를 지정하여 분기별로 기업체 방문을 통해 기업경영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금년에는 오페수 관로연결, 불법광고물 철거, 회전형 신호등 설치, 산단조성 원가 공개 등 14건의 애로·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산단 및 기반시설 분야, 공장환경 관련 분야, 자금지원 및 교통·주택 등 근로자 편의 분야 등에 181건을 처리하여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해결하고자 「기업사랑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은 입주기업간 생산제품 정보제공이 없어 상호간 거래가 어렵다는 기업체 애로사항을 접하고, 입주기업 우수생산제품 홍보책자를 2013년도 2월중에 제작하여 입주기업, 전국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2013년도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내년 2월중에 개최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활발히 개발·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FEZ, 중국 온주시 '대외경제 기술합자협회'와 교류확대



양 기관,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희봉 청장)은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심천, 홍콩, 온주 지역을 방문하여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중국 온 주지역 태양광 모듈제조 등 신성장산업 50개기업 및 온주시 기술상무국, 투자유치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주시 대외경제기술합작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모듈제조 등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국기업과 광양만권내 기업간 상호협력력을 위한 지원 및 한중 양국에 대한 투자정보 교환, 잠재투자기업 발굴과 중국기업의 광양만권에 대한 투자유치 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희봉 청장은 “금번 중국 온주시 대외경제기술합작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중 기업간 경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을 강화 함으로써 GFEZ의 중국기업 유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 으로 전망하였다.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 광양지구

광양지구에 위치한 광양항은 광양만의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항만배후에 세계 제일의 POSCO와 여수석 유화학단지, 울촌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해 있으며, 원유, 석유화학제품, 비료, 석탄, 철광 석, 철강제품 등 주요한 산업제품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항내 수면적이 122.99km²(여수 4.99, 광양 118.00)에 달하고 총 84개 선석을 갖추고 있어 컨테이너선, 유조선, 산물선, 케미칼선, LNG선 등 연간 6만여척이 입출항하며, 약 2.34억톤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미주와 구주, 아시아를 잇는 주간선항로상에 위치하는 지경학적 조건, 광양만에 위치하여 연중 정온수역을 유지하는 천혜의 입지여건,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중국 환적 화물의 거점항 역할 수행, 국제물류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21세기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하고 있다

광양지구(15.22km²) -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 제철 관련 재료,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거점 조성
-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환적화물의 중심지 형성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6개 선석 완공, 2020년까지 총 25개 선석 개발 예정
- 광양항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으로 동시 지정되어 특별 혜택 부여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수심 15~17m의 항로와 광활한 배후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부두가만으로 형성되어 있어 방파제 없이도 정온수역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한 천혜의 부두이다. 그리고 지리 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중국 환적화물의 거점항으로 최적의 위치에 놓여있고, 세계 제일의 POSCO와 대규모 여수석유화학단지, 울존산업단지가 산업벨트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전주와 광양을 잇는 고 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수도권에서 광양항까지 운행시간이 종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가량 단축 되어 광양항을 이용한 수출입 화물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1998년 7월 17일 개장되어 올해 개장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16개 선석이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부두의 하부공사를 마친 3-2단계 4선석은 철재·자동차 등 여러 종류의 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로 운영되고 있다.

대형 컨테이너선의 접안이 가능한 17m에 달하는 깊은 수심, 연간 548만TEU의 처리능력을 갖춘 초대 형급 항만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광양항 물동량 증가를 위해 컨테이너 부두 1단계 1·2번 선석을 일반부두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HSGT, KIT, 대한통운 등 3개 운영사가 24개 선사 의 컨테이너선을 주당 78항차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불안정한 해운·항만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214만TEU를 처리하고, 올해는 230만 TEU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객인 선사와 화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 입항료, 접안료 및 화물입항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하고 컨테이너세를 폐지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의 간선항 로상에 위치하여 환적화물 유치에도 매우 유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21세기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향후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의 본격 가동에 따른 로컬화물 창출로 광양항 자립기반구축에 필요한 물동량 300만TEU/년 달성이 눈앞에 다가서고 있다.



광양항 배후 물류단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뒤편에는 광양항 배후물류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선진 항만으로 성장하고있는 광양항의 후면에 위치한 광양항 배후물류단지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으로서 2012년 6월 총 448만㎡(동측 254만㎡/2008년 12월, 서측 194만㎡/2012년 6월)가 완공되었다. 이는 항만의 종합물류기지화 추세에 대응하여 화물의 유통, 가공, 포장, 정보, 무역, 전시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물류기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내외 물류 및 제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제물류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다.

동측배후단지는 현재까지 일본, 영국 등을 비롯하여 27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운영에 들어가 화물창출형 항만으로서 국제물류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이들 기업이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경우 약 50만TEU/년의 추가 물동량이 발생하여 광양항은 이제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동측배후단지는 냉동·냉장창고, 복합운송창고, 황금물류센터 등 각종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물류 여건이 뛰어나고, 투자유치를 위한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광양항 냉동·냉장창고와 복합운송창고는 물류의 원활과 항만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며, 광양항 황금물류센터는 기존 항만 CFS의 보관·배송의 단순 물류기능을 탈피하고 분류, 조립, 가공, 전시 등의 신(新) 물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서측배후단지 194만㎡는 첨단제품의 가공·조립시설과 국제전시장, 비즈니스 파크, 국내외 기업 사무실 등이 들어서는 국제적인 종합물류단지 등 각종 물류지원 시설이 들어선다. 컨테이너부두를 통해 입항하는 일반화물이나 환적화물을 종합물류단지에서 고부가가치 물품으로 조립·가공한 뒤 출항시켜 물량 증가와 가공 수출 효과를 거둘 것이며, 부지 임차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싼 값에 장기 임대해 조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기업들은 세계 주요지역에 생산 및 물류거점을 구축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양항 및 배후단지는 8,879천㎡의 면적에 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광양항을 통해 반입된 화물을 조립·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더한 후 재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기에 최적지이다.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무관세 및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배후 물류단지: 우대임대료 30원/㎡·월, 기본임대료 200원/㎡·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화물의 하역·보관뿐만 아니라 집배송, 가공·조립 등 고부가가치 항만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게 되어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주) MOU 투자유치
(2013.02.21)



GFEZ 제57회 조합회의 임시회
(2013.02.05)



2013 기업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2013.02.01)



2013년도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2013.01.21)



'13년 투자유치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2013.01.11)



GFEZ, 성공기원 다짐대회 개최
(2013.01.07)



2013년 시무식
(2013.01.03)



'12년 투자유치 결산 보고회 개최
(2012.12.26)

생태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제 | 지구의 정원, 순천만

기간 | 04.20~10.20

장소 | 순천만 일원



발행일 2013년 02월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인 이 희 봉
<http://www.gfez.go.kr>
